

이달의 초점

위기 청년 지원과 과제

청년미래센터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하슬앞|

청년미래센터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김성아|

위기 청년 지원 법제화의 의의와 과제

|박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청년미래센터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¹⁾

Pilot Programs Supporting Isolated Young Adults in Youth Future
Centers: Outcomes and Implications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지원기관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 수행되었지만,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시범사업은 2024년 8월 14일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에서 첫발을 뗐다. 1차 연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신청 시점 9.5점에서 2025년 1월 기준 9.6점으로 0.1점(1.0%) 증가한 반면 은둔 상태는 같은 기간 71.0점에서 62.3점으로 8.7점(12.3%) 감소했다. 시범사업의 단기 성과로서 삶의 만족은 신청 시점 2.6점에서 2025년 1월 기준 3.8점으로 1.2점(49.6%) 증가했다. 그리고 고립·은둔하던 삶에서 '청년미래센터'라는 밖으로 나갈 이유가 생겼다. 무조건 지지하는 전담 인력과 공감대를 공유하는 동료들 만나 또래다운 경험으로 평범함을 회복하면서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게 되고, 결국 연결된 자립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장 궤적이 나타났다.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1 들어가며

새로운 취약집단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2023년 기준 약 49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고립·은둔청년은 자발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는 공감대가 늘어났다 (김성아, 2025). 한편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지원기관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시범사업

1) 이 글은 김성아, 안수란, 이정은, 하슬임, 김아래미, 김주연, 노혜진, 박광동, 한솔희, 조보배. (2025). 청년복지 사업 기반 및 성과 평가 기초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7장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은 2024년 8월 14일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에서 첫 발을 뒀다. 위기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청년미래센터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설치되었다(보건복지부, 2024. 8. 14.).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고립·은둔 청년의 삶 실태와 복지 욕구, 국내외 지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열개를 구성하였다(김성아 외, 2022; 김성아 외, 2023, 관계부처합동, 2023. 12. 13.).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센터를 열어 당사자와 가족 등 주변인의 오프라인 신청을 접수하면서도 청년ON 사이트를 개설해 고립·은둔청년의 실질적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전담 인력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별 탈고립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을 지원했다. 공동생활과 일경험을 지원하여 고립·은둔청년의 회복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24. 8. 14.).

위기 청년, 특히 경제력이나 고용 지위 등 전통적인 기준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유형의 취약성으로 고립·은둔을 겪은 청년에 대한 지원은 새로운 시도였다. 당사자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실태조사 등으로 욕구를 인지하더라도 지역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2025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위기아동·청년지원법」에 의해 본사업화를 앞두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위기 청년 지원 전담조직인 청년미

래센터에 의한 청년복지의 제도화를 앞두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1차 연도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사업 성과는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방법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 고립·은둔청년 지원의 정량 성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 청년ON 자가진단 사이트 데이터 원자료와 청년미래센터 사업 참여 청년별 지원 내용, 모니터링에 의한 결과지표 사전 및 사후 응답값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름, 거주 지역, 출생 연도, 성별의 개인식별 정보를 기준으로 개별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data-pooling). 결과지표 중 루벤사회적네트워크척도(Lubben Social Network Scale, LSNS-6+2)와 HQ25(25-Item Hikikomori Questionnaire), 삶의 만족은 청년ON 자가진단 사이트와 비교하여 획득한 반면 삶의 통제감(LCS)은 센터에 따라 참여 시점 정보를 구득하지 않았으므로 분석할 수 있을 크기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였어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 원천별 표본 수는 다음과 같다. 단 참여 청년별 지원 내용은 결과지표 사전 응답값(1차) 수집 시 취합하여 제외하였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ON 응답자는 522명이다. 결과지표 1차

[표 1]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분석 자료

구분	변수	비고
(1) 청년ON 자가진단 데이터 원자료	거주 지역, 이름, 출생 연도, 성별, 삶의 만족, 루벤사회적네트워크 은둔 척도, 인지 경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에 한함
(2) 참여 청년별 지원 내용	거주 지역, 이름, 출생 연도, 성별, 참여 프로그램, 참여 기간, 공동생활 여부 등	센터 실무자 응답
(3) 모니터링에 의한 결과지표 사전 응답값(1차)	거주 지역, 이름, 출생 연도, 성별, 응답 시기, 삶의 통제감, 삶의 만족, 루벤사회적네트워크 척도, 은둔 척도	2024년 11월 말까지 신청 시점 기준
(4) 모니터링에 의한 결과지표 사후 응답값(2차)	거주 지역, 이름, 출생 연도, 성별, 응답 시기, 삶의 통제감, 삶의 만족, 루벤사회적네트워크 척도, 은둔 척도	2025년 1월 중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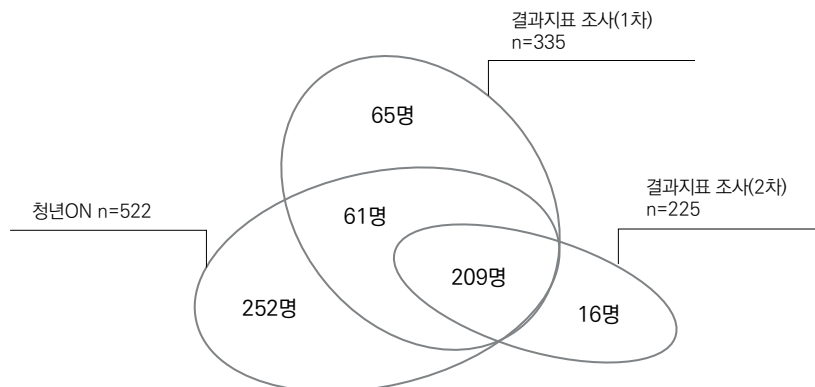
출처: “청년복지 사업 기반 및 성과평가 기초 연구”, 김성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98.

조사 응답자는 335명이고, 청년ON 응답자와 중복되는 사례는 270명이다. 결과지표 2차 조사 응답자는 225명이고, 청년ON 및 1차 조사 응답자와 중복되는 사례는 209명이다.

분석 자료에 의해 사회적 교류와 지지 체계로 보는 사회적 고립의 상태는 사회적 관계와 도움을 주

고받는 지지 체계의 양을 측정하는 루벤사회적네트워크 척도(Lubben Social Network Scale, LSNS-6+2)와 은둔 성향을 측정하는 HQ25 (25-Item Hikikomori Questionnaire) 척도로 측정하였다(Lubben et al., 2006; 이경우 외, 2009; Teo et al., 2018; 제세령 외, 2022). 고립

[그림 1]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 원천별 표본 수



출처: “청년복지 사업 기반 및 성과평가 기초 연구”, 김성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98.

[그림 2] 청년미래센터 사업 참여 청년의 고립·은둔 유형

비고립(17점 이상)	③ 은둔×비고립	⑥ 비해당
고립위험(13~16점)	② 은둔×고립위험	⑤ 고립위험×비은둔
고립(12점 이하)	① 은둔×고립	④ 고립×비은둔
	은둔(42점 이상)	비은둔(41점 이하)

출처: “청년복지 사업 기반 및 성과평가 기초 연구”, 김성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01.

상태를 측정하는 LSNS-6+2의 8개 질문별 최소 0점부터 최대 5점의 응답값을 합하여 17점 이상이면 고립으로, 13점에서 16점 사이면 고립위험인 것으로, 12점 이하이면 고립이 아닌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은둔 상태를 측정하는 HQ25의 25개 질문별 최소 0점부터 최대 4점의 응답값을 합하여 42점 이상이면 은둔으로, 41점 이하면 은둔이 아닌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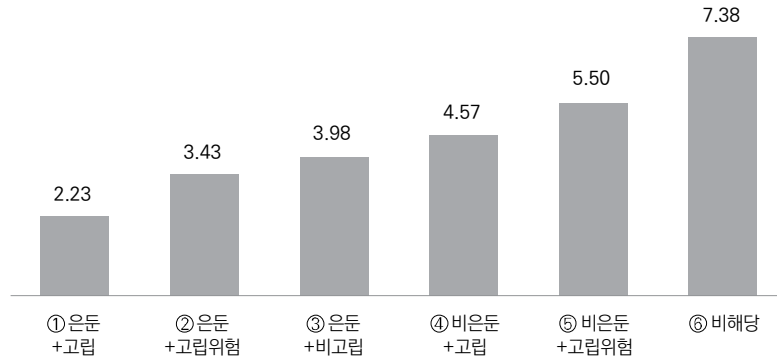
고립 유형과 은둔 유형을 교차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별 삶의 만족 점수는 이어지는 [그림 3]과 같다. 은둔과 고립 상태가 교차하는 지점에 ①번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 점수는 2.2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②번 집단은 HQ25에 의해 은둔 성향이 높고, LSNS-6+2에 의해 고립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집단으로, 이들의 평균 삶의 만족 점수는 3.43점이다. ③번 집단은 HQ25에 의해 은둔 성향이 높지만, LSNS-6+2에 의해서는 고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으로, 이들의 평균 삶의 만족 점수는 3.98점이다. ④번 집단은 HQ25에 의해 은

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LSNS-6+2에 의해서는 고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으로, 이들의 평균 삶의 만족 점수는 4.57점이다. ⑤번 집단은 HQ25에 의해 은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LSNS-6+2에 의해 고립위험군으로 보이는 집단으로, 이들의 평균 삶의 만족 점수는 5.50점이다. ⑥번 집단은 HQ25에 의해 은둔하지 않고, LSNS-6+2에 의해 고립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집단으로, 이들의 평균 삶의 만족 점수는 7.38점이다. 종합하면 삶의 만족으로 추정하는 고립과 은둔으로 인한 취약성은 ①번 집단이 가장 심각하고, ②, ③, ④, ⑤, ⑥번 집단의 순으로 나타난다. 고립과 은둔의 연속적인 경험 속에서 은둔 상태에 있을 때 취약성이 가장 극심하고, 고립된 정도와 취약성이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고립과 은둔 상태는 사업에 참여한 전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은둔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2.3% 감소하였고, 삶의 만족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49.6% 증가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

[그림 3] 청년의 고립·은둔 유형별 삶의 만족(2024년 11월 말 기준)

(단위: 점)



주: 1) 센터별 정보가 있는 유호 표본 703명에 한함.

2) [그림 2]에 의한 유형임.

출처: “청년복지 사업 기반 및 성과평가 기초 연구”, 김성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02.

타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적 네트워크(LSNS-6+2)는 신청 시점 평균 9.5점에서 2025년 1월 기준 9.6점으로 0.1점 상승해 1.0% 증가하였다. 은둔 상태(HQ25)는 신청 시점 71.0점에서 2025년 1월 기준 62.3점으로 8.7점

낮아졌는데, 이는 12.3% 감소한 것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 2024년 8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은둔 상태의 개선은 비교적 즉각적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표 2] 고립·은둔청년의 사업 참여 전후 사회적 네트워크, 은둔, 삶의 만족 변화

(단위: 점)

구분	t1 (신청 시점)	t2 (2025년 1월)	t2-t1	증감률(%)	t-values
LSNS-6+2	9.47	9.57	0.10	1.0	0.1383
HQ25	70.99	62.28	-8.71	-12.3	-4.8002***
삶의 만족	2.57	3.84	1.27	49.6	-5.0644***

주: * $p < 0.5$, ** $p < 0.01$, *** $p < 0.001$.

출처: “청년복지 사업 기반 및 성과평가 기초 연구”, 김성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07.

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삶의 만족²⁾ 수준은 신청 시점 기준 2.6점에서 2025년 1월 기준 3.8점으로 상승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49.6% 증가하였다. 고립과 은둔 상태의 변화는 사업에 참여한 청년 삶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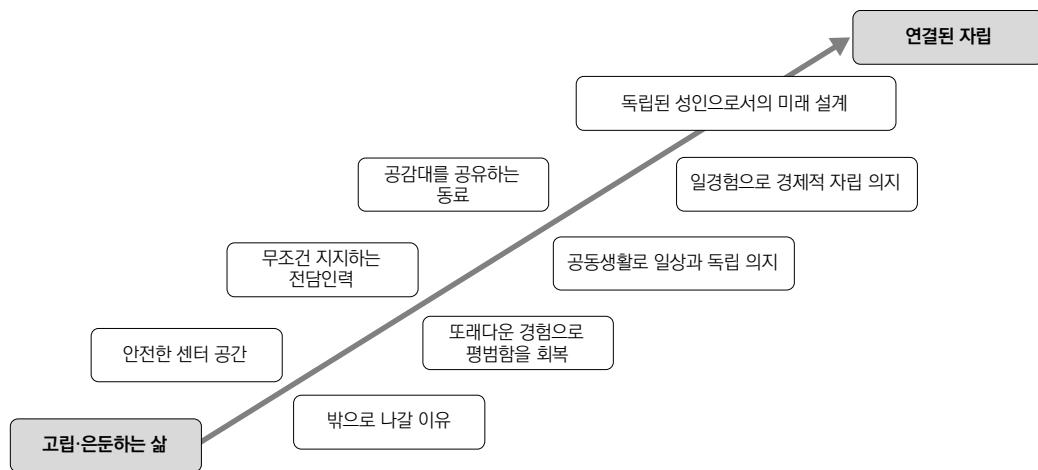
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고립·은둔으로부터 벗어나 연결된 자립으로의 변화는 ‘살아 있음’ 자체라고 하였다. 단순히 의학적으로 살아 있는 상태를 넘어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평범함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3 고립·은둔청년 지원의 정성 평가³⁾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의 정성 평가를 위해 4개 청년미래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년 당사자를 대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사람과 대하는 게 무척 힘들었는데, 센터에 다닐수록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편하게 평범함을 회복해서 행복해요. 매일 내일이 기다려져요. 동아리 활동에서 사진을 배

[그림 4] 고립·은둔청년의 변화 궤적



출처: “청년복지 사업 기반 및 성과평가 기초 연구”, 김성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17.

2)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이 척도는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 범위의 단일 질문으로 구성된다.

3) 이 부분은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참여하는 청년미래센터의 지역을 이용해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인천 A는 35세 여성으로 3년 정도 고립·은둔하였고, 인천 B는 32세 여성으로 10년 정도 고립·은둔하였다. 울산 A는 27세 여성으로 6개월 정도 고립·은둔하였고, 울산 B는 27세 남성으로 7개월 정도 고립·은둔하였다. 충북 A는 27세 남성으로 1년 정도 고립·은둔하였고, 충북 B는 31세 남성으로 1년 정도 고립·은둔하였다. 충북 C는 29세 여성으로 고립·은둔 기간은 약 9개월 정도이다. 전북 A는 26세 여성으로 5~6년 정도 고립·은둔하였다.

우면서 문득 집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울산 A)

“(고립·은둔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당장 자존심과 자존감이 막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조금씩 제가 변화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충북 A)

변화는 고립·은둔을 벗어나 ‘밖에 나갈 이유’로부터 출발했다. ‘청년’의 ‘고립’과 ‘은둔’을 키워드로 그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의 시범사업은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집 밖으로 나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고립·은둔하는 동안 불특정 다수, 혹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이들이(김성아 외, 2023, pp. 204-208) 완전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괜찮기 때문에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에 부담이 덜한 안전한 공간이기도 했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사회활동과 사회생활이 서투른 고립·은둔청년이 참여해 변화를 도모할 만한 안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계 형성과 사회 복귀를 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김성아 외, 2023, p. 273).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경험을 통해 고립·은둔청년들은 자기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획득하며, 점진적으로 관계망을 확장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데에 용기를 얻게 되었다.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은 취약한 자기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센터에서 연계한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충북 B)

고립·은둔하는 동안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 상태에서 긴장감이나 불편함을 극복하며 점진적으로 관계망을 넓혀 갔다. 이 과정에서 고립·은둔을 경험한 자기를 수용하게 되고, 스스로 치유되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은둔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다 보니 밖에 나오면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센터에서 스키 캠프라든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하면서 예전보다 활력이 늘었어요.”(울산 B)

“(은둔했던 걸) 꺼내서 이야기를 하니깐 오히려 조금 스스로에게 좀 치료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해방감이라고 해야 되나.”(인천 A)

물리적 공간을 갖춘 청년미래센터는 안전한 인간관계 회복의 장이었다. 집에서 대중교통 등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이용하는 데에 경제적 부담

이 덜한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같이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실 등 공유 공간에서 고립·은둔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료들 만나면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고립·은둔에 대한 편견이 덜한 곳에서 안전한 인간 관계를 회복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기회였다.

“제가 (고립·은둔하는 동안) 사람을 거의 안 만나 봤거든요. 여자는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는데 남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대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요. 소그룹 네트워킹하면서 같이 모르는 사람들끼리랑 만나니까 인간관계하는 법도 조금씩 찾아나가서 좋았고...”(충북 C)

전담 인력과 동료 등 관계망의 점진적 확장이 가능했다. 전담 인력은 취약한 상태의 고립·은둔을 벗어나려는 청년의 의지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무조건 지지하는 새로운 지지 체계로 의미를 가졌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이 생경하고 어렵지만, 센터 전담 인력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고립·은둔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기획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지를 이어 갔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한 고립·은둔청년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회복했다.

“뭔가 하려고 하면 (전담 인력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용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북 A)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어 가며 함께 회복과 사회 복귀를 꾀하는 동료가 생겼다. 대인관계가 여전히 두려울 수 있는 서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안전한 관계를 경험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웠던 고립과 은둔의 취약한 어려움을 공유하는 동료와 서로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상호 치유하는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서로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응원하는 지지 체계를 점차 확장하였다. 시범사업 1차 연도에 전담 인력과 동료로 넓혀 가고 있는 고립·은둔청년의 관계망은 다른 유형의 위기 청년, 그리고 또래 청년과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서로 은둔하고 고립됐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친해져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밥을 특히 같이 먹으니까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프로그램 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또 학교 다니는 것처럼 또 떠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은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좋은 친구가 됐거든요.”(인천 B).

청년미래센터에서 고립·은둔청년들은 일상과 또래다운 경험을 회복하며 평범함을 찾아갔다. 고립·은둔을 벗어나 또래다운 경험의 물꼬를 트며 평범함을 회복할 기회가 되었다. 고립·은둔에 이르면서

취약한 상태에서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또래다운 경험으로부터 소외된 사례가 많았다. 청년들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연극을 관람하거나 동물원에 가거나 스키캠프를 가는 등 또래 청년들이 해봤을 경험을 쌓아 가면서 점차 한 사람의 평범한 청년이 되어갔다. 또한 실패 경험을 누적하면서 낮설어진 사소한 성취를 쌓아 가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제가 이제 집에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미래센터에서) 카페랑 가상회사를 같이 (참여)했어요. 가상회사는 월요일 빼고 오후에 다 나갔거든요. 가상회사는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만 안 있게 되고 매일 나가게 되니까 그게 되게 좋았고….”(충북 C)

고립·은둔을 벗어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청년미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및 동료와의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청년 당사자는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미래를 설계할 활력을 회복해갔다. 공동생활은 아침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끼니를 챙기는 일상의 루틴을 회복하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같이 사는 동료들과 다툼을 하기도 하지만, 촉진자(facilitator)로서 전담 인력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회복하면서 타인과 느슨하고도 탄탄하게 연결되는 경험을 축적한다(김성아 외,

2024). 특히 청년미래센터의 공동생활은 ‘아는 곳’에서 ‘아는 사람’과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아는) 센터 안에서 (공동생활하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어요.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사람이 많으면 싸우기도 하겠지만 이제 더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됐던 것 같아요.”(충북 C)

또한 일경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 의지를 회복해간다. 영상이나 온라인에서 보는 또래 청년들처럼 ‘사회에 나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1인분의 삶을 살고 싶지만, 실패를 누적해 고립·은둔한 청년들이 점진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낮은 단계의 일경험 프로그램에서 성취를 쌓아 갔다. 청년미래센터 일경험 프로그램은 사람과의 교류를 낮설어하는 고립·은둔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낮은 단계의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단순한 체험으로 그치지 않고 바리스타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도자기 공예를 배우는 등 경력을 쌓고 취업 혹은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사회적 기업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로가 될 수도 있다.

“나도 빨리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가족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일경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사회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
아요.”(울산 A)

4 나가며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이
시범사업은 2024년 8월 14일 전국 4곳에 청년미
래센터를 열면서 청년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했다. 다만 개소 후 센터의 물리적 공간과 운영 시
스템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청년에
대한 직접 사업 수행 기간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한
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고립·은둔청년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였
다. 고립·은둔청년의 취약성으로서 사회적 네트워
크(LSNS-6+2)는 신청 시점 9.5점에서 2025년 1월
기준 9.6점으로 0.1점(1.0%) 증가한 반면 은둔
(HQ25) 상태는 같은 기간 71.0점에서 62.3점으
로 8.7점(12.3%) 감소했다. 시범사업의 단기 성과
로서 삶의 만족은 신청 시점 2.6점에서 2025년 1월
기준 3.8점으로 1.2점(49.6%) 증가했다. 그리고
고립·은둔하던 삶에서 안전한 공간인 ‘청년미래센
터’라는 밖으로 나갈 이유가 생기면서 무조건 지지
하는 전담 인력과 공감대를 공유하는 동료로 만나
고, 또래다운 경험을 통해 평범함을 회복하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공동생활은 독립을, 일경험은 경제

적 자립을 희망하게 했으며, 결국 독립된 성인으로
의 미래를 설계하고 연결된 자립의 삶으로 나아가
는 성장 궤적이 나타났다.

다만 청년복지 사업의 성과를 양적·질적으로 검
증하였으나, 사업의 순효과를 추출하기 위해 지원
전후 성과를 비교할 미지원 집단, 즉 통제군이 부존
재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에 참여한 청년들이 상대적
으로 청년미래센터 사업에 충실성을 가진 집단이라
면 선택 편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적 지원체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고립·은둔청
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입체적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025년 2월 「위기아동·청년지원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위기 청년 지원사업의 법적 근
거가 마련되었다. 2026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수행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립·
은둔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위기
청년 지원사업의 전담 조직이자 지역 청년복지의
허브로서 청년미래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청년복지 사업을 통해 고
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 청년을 실효
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행되
어야 한다.

첫째, 표준화된 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사업
의 지역 간 격차를 없애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
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업 기반을 뒷받침해야 한

다. 정보시스템은 위기 청년 지원사업에 의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고립·은둔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성과 DB를 구축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

둘째, 위기 청년이 지원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우선 온라인 지원 경로로 청년ON 사이트를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통신 및 위치에 관한 민간 정보와 교육, 병무, 고용 행정데이터 등 청년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잠재적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고립·은둔 등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청년 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을 양성, 안정적으로 경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광역 단위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는 청년미래센터의 사업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민간 지원기관 등 법률에 의한 인

증제에 의해 위기 청년 전문기관으로 인증받는 기관이 지역 사업을 수행하는 거점기관으로 역할하도록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도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 단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성과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위기 청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수행 경험을 모니터링하고, 고용 및 교육 분야 행정데이터 등을 연계해 고립·은둔청년이 주도적으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관리 및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고립·은둔청년의 취약성으로서 고립과 은둔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루벤 사회적 네트워크 척도(LSNS-6+2)와 은둔 척도(HQ25)를 쓰고 있다. 그러나 두 척도는 각각의 맥락에서 개발된 것으로, 한국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고립과 은둔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비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형 청년의 고립·은둔 척도를 개발하여 지원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23. 12. 13.).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김성아. (2025). 청년 은둔 양상의 변화와 정책 과제. **보
건복지포럼**, 347, 68-83.

김성아, 노현주, 김기태, 김문길, 안수란, 신영규, 임덕영, 정세정, 함선유. (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김문길, 임덕영, 노혜진, 노현주.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최선영, 노혜진, 조보배. (2024). **저출산 시대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자생적 공동체 형성 실험 연구**. SBS문화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안수란, 이정은, 하솔잎, 김아래미, 김주연, 노혜진, 박광동, 한솔희, 조보배. (2025). **청년복지 사업 기반 및 성과 평가 기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4. 8. 14.).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이경우, 김수영, 정우빈, 황교순, 황예원, 황인홍. (2009). 한국어판 Lubben Network Scale 설문지 개발.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0(5), 352-358.

제세령, 최태영, 원근희, 봉수현. (2022).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61(2), 80-89.

Lubben, J., Blozik, E., Gillmann, G., Iliffe, S., von Renteln Kruse, W., Beck, J. C., & Stuck, A. E. (2006). Performance of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among three Europea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 populations. *Gerontologist*, 46(4), 503-513. [https://doi: 10.1093/geront/46.4.503](https://doi.org/10.1093/geront/46.4.503)

Teo, A. R., Chen, J. I., Kubo, H., Katsuki, R., Sato

-Kasai, M., Shimokawa, N., Kanba, S., & Kato, T. A.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25-item Hikikomori Questionnaire (HQ-25).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2(10), 780-788.

Pilot Programs Supporting Isolated Young Adults in Youth Future Centers: Outcomes and Implications

Kim, Seong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hile some local governments and NGOs had already launched support programs for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it was only with the opening of the first four Youth Future Centers on August 14, 2024 that the initial national-level step was taken in piloting these efforts. Participants in the first-year pilot of the Support for At-Risk Young Adults Project scored 9.6 points on the LSNS-6(+2) in January 2025, a 0.1-point increase from when they first entered the program. The HQ-25 score, a measure of reclusiveness, dropped from 71.0 to 63.2 points—a 12.3 percent reduction. Life satisfaction scores increased by 49.6 percent, from 2.6 to 3.8 points. The Youth Future Center as a safe physical space was reason enough for the participants to step out of their reclusive lives. The participants met there with staff who were unreservedly supportive as well as peers whose experiences resonated with their own, and, engaging in activities befitting their age, began to reconnect with the normalcy of everyday living, learning to hope for independence and economic self-reliance, gradually setting out on a path of personal growth toward ‘connected independence.’ This study examines the pilot phase outcome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